#### 1 Introduction

일반적으로, thermodynamics와 kinetics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. 하지만, 몇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는 둘이 큰 연관을 가질 수 있다. 이번 글에서는 다음 concept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:

- Radical halogenation
- Selectivity of radical halogenation
- Hammond Postulate

# 2 Radical Halogenation

### 2.1 Bond-Dissociation Energy (BDE)

Radical halogenation 반응을 이해하기에 앞서, 몇 가지 결합들에 대한 BDE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.

type	methyl	1°	$2^{\circ}$	3°	
formula	$\mathrm{CH_3}-\mathrm{H}$	$RCH_2 - H$	$R_2CH-H$	$R_3C-H$	
$DH^{\circ} (\text{kcal/mol})$	105	101	98.5	96.5	

H 원자가 떨어져 나간 이후의 carbocation이 안정할수록 BDE가 작아진다. 중심의 C 원자를 기준으로 substitution이 늘어날수록 hyperconjugation에 의한 carbocation의 stabilization이 커지므로, 위와 같은 경향성을 이해할 수 있다. 그리고 결합의 세기로부터, 결합 길이는 반대의 경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.

#### 2.2 Mechanism of Radical Halogenation

학부 유기화학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반응의 메커니즘을 알아보자. 우선, 가장 간단한 alkane인 methane의 chlorination 반응을 살펴보자.

$$CH_3 - H + Cl - Cl \xrightarrow{\Delta \text{ or } h\nu} CH_3 - Cl + H - Cl$$

위의 반응은 reactant들에 UV light를 쬐어 주거나 300°C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관찰된다. 위와 같은 halogenation 반응의 mechanism은 radical chain mechanism이라고 알려져 있다. 여기서 radical이란 홀전자를 가지는 화학종을 의미한다. 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.

(1) **Initiation**: UV나 가열에 의해서 Cl 기체 분자가 homolytic cleavage (single bond의 전자를 골고루 나눠 갖는)를 거친다.

$$Cl - Cl \xrightarrow{\Delta \text{ or } h\nu} 2Cl \cdot \qquad \Delta H^{\circ} = +58\text{kcal/mol}$$

중요한 점은, 모든 reactant의 chlorine gas 분자가 위와 같은 initiation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. 사실 위의 반응은 꽤나 endothermic하므로 썩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, 미량의 Cl radical이 생성되기만 하더라도 이후의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므로 문제는 없다.

(2) **Propagation**: Initiation step에서 만들어진 Cl radical이 methane을 공격한다.

$$\text{Cl} \cdot + \text{H} - \text{CH}_3 \rightarrow \text{Cl} - \text{H} + \cdot \text{CH}_3 \qquad \Delta H^{\circ} = +2\text{kcal/mol}$$

이 과정에서 생성된  $methyl \ radical(CH_3\cdot)$ 이 또다른  $Cl_2$ 를 공격해서  $Cl \ radical$ 을 재생성한다.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.

$$H_3C \cdot + Cl - Cl \rightarrow H_3C - Cl + Cl \cdot \Delta H^{\circ} = -27kcal/mol$$

즉 앞에서 언급한대로, initiation 단계에서 미량의 Cl radical이 생성되더라도, 계속된 연쇄반응으로 반응은 이어질 수 있다. Propagation의 첫 번째 단계는 slightly endothermic하지만, 두 번째 단계가 exothermic하므로 반응 전체의 driving force가 된다.

(3) Termination: 반응이 종결될 때는, 반응에 참여하는 radical들이 서로 조합되어 생성물을 만든다.

$$\begin{array}{ccc} \mathrm{Cl} \cdot + \mathrm{Cl} \cdot & \rightarrow & \mathrm{Cl} - \mathrm{Cl} \\ \\ \mathrm{Cl} \cdot + \mathrm{CH}_3 \cdot & \rightarrow & \mathrm{Cl} - \mathrm{CH}_3 \\ \\ \mathrm{CH}_3 \cdot + \mathrm{CH}_3 \cdot & \rightarrow & \mathrm{H}_3 \mathrm{C} - \mathrm{CH}_3 \end{array}$$

#### 2.3 Other Radical Halogenation of Methan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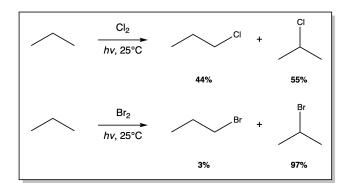
Cl을 제외하고도, 17족에는 다른 halogen들이 있다. 다른 종류의 halogen에 대해 각 step의 energetics를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. 단위는 모두 kcal/mol이다.

Reaction		Cl	Br	Ι
$X \cdot + CH_4 \rightarrow \cdot CH_3 + HX$		+2	+18	+34
$-CH_3 + X - X \rightarrow X - CH_3 + X - $	-72	-27	-24	-21
$\begin{array}{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$	-103	-25	-6	+13

생성되는 H-X 결합의 세기에 따라서 반응 전체가 exothermic한지 endothermic한지 결정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. 위의 표로부터, radical iodination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. 그리고, CI이 아닌 다른 halogen에 대해서도 앞 절에서와 동일한 mechanism을 가진다는 사실을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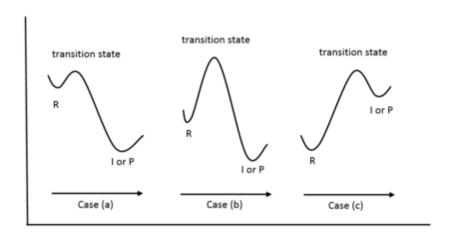
# 2.4 Selectivity of Radical Halogenation

Methane 또는 ethane과 같이 간단한 alkane 말고, 좀 더 복잡한 alkane의 radical halogenation을 생각해 보자. 그 다음으로 복잡한 propane( $C_3H_8$ )의 chlorination과 bromination을 살펴보자. 이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.



Propane은 6개의 primary hydrogen과 2개의 secondary hydrogen을 가지고 있으므로, 2가지의 radical halogenation product가 생성된다. 그래서, 이론적으로는 primary H가 치환된 product와 secondary H가 치환된 product의 비율이 3:1, 즉 75%와 25%를 차지해야 할 것처럼 여겨진다. 그러나 chlorine에서는 그 둘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며, 심지어 bromine에서는 거의 secondary H가 치환된 product가 대부분을 차지한다.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?

#### 2.5 Hammond's Postul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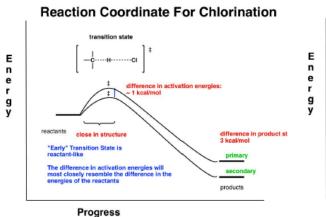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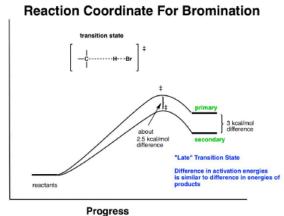
어떤 반응에 대해서, reactant와 transition state 사이의 형태가 비슷하다면, 그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reorganization energy도 작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.

- Exothermic한 반응이라면, 상대적으로 activation barrier  $(E_a)$ 도 작고, transition state의 형태도 reactant와 유사하다 (Early TS, reactant-like).
- Endothermic한 반응이라면, 상대적으로 activation barrier가 높고 따라서 transition state의 형태는 product에 더 가깝다 (Late TS, product-like).

이를 Hammond's postulate라고 부른다. Hammond's postulate를 바탕으로 앞 절의 결과를 설명해 보자.

- Halogen radical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역시 중요하다. Primary radical보다 secondary radical이 더 안정하다. 이유는 역시 hyperconjugation.
- 그러나, chlorination reaction의 driving force (전체  $\Delta H^{\circ}$ 의 크기)가 더 크다. 즉, driving force 자체가 큰 chlorination reaction에 대해서는 secondary radical이 조금 더 안정하다는 사실이 "뭉개진다".
- 반면에 bromination reaction은 그 driving force 자체가 약하므로, radical의 stability가 반응물의 분 포에 큰 영향을 준다.
- 상대적으로, radical chlorination의 transition state는 reactant-like하다. 반대로, radical bromination의 transition state는 product-like하다.
- 따라서, radical chlorination에서는 activation barrier 자체가 낮으며, 두 가지 product를 향한 pathway 모두를 쉽게 지날 수 있다.





- 반면, late TS를 가지는 radical bromination은 activation energy의 차이가 product distribution에 큰 영향을 준다.

Radical fluorination의 경우에는, driving force의 크기가 chlorination에서보다 더 크다. 따라서, statistical ratio (3:1)에 훨씬 가까운 숫자를 얻게 된다. 정리하자면, transition state가 early인지 late인지 그 정도에 따라서, statistical ratio에서 product distribution이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.

### 3 Conclusion

Radical chain mechanism은 앞서 언급했듯이 유기화학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반응 메커니즘이다. 즉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간단한 예시로부터 physical organic chemistry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Hammond's postulate에 대해 얕은 수준의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# 4 References

- 1. Vollhardt, P.; Schore, N. Organic Chemistry, 8th ed.; W. H. Freeman, 2018.
- 2. Carey, F. A.; Sunderberg, R. J. Advanced Organic Chemistry Part A: Structure and Mechanisms, 5th ed.; Springer, 2007.